



# 장 군 님 과 C N C (7)

## 마를새없는 근심

2009년 2월 어느날이었다. 북방에는 추위가 한창이었다. 라남판광기계연합기업을 또 다시 찾은 경에하는 장군님께서 공장의 지배인이 정중히 인사를 드리었다. 장군님께서 현장을 돌아보실 때 그는 어느 한 기계에 CNC를 도입하였다고 말씀드러었다. 《CNC를 했소? 잘했소!》 제일 반가운 소식인듯 그의 얼굴이 때면이 밝아졌다. 《CNC를 기계에 어떻게 붙였소?》 기쁘서 더우치는 물음이었다. 《원래였던 유압식보내기장치에 사보를 달고 CNC로 조종했습니다.》

지배인의 대답을 듣고 확실히 이 기계는 이 동무들이 제일 잘 만든다고 수형일군이 정중히 말씀드렸다. 그 기계는 이 공장만이 아니라 다른 공장에서도 만들고있었던것이다. 경영열이 내비쳐지는 솔직한 이야기였다. 장군님께서 그의 이야기를 제격 되반 아쉬우셨다. 《웁소. 이 사람들이 항상 선코를 땀안 땀이요.》 장군님께서 칭찬해주는 바람에 지배인의 목소리는 더욱 커졌다. 《장군님의 은정으로 저희들이 세계 여러 나라들에 가서 견문을 넓히었습니다. 이제는 우리 힘으로 CNC화된 기계를 만들수 있습니다.》

손에 찬것은 얼마 되지 않지만 일욕심은 하늘에 닿아 스그머니 졸라대는것이다. 아버지지를 믿고 매달리는 아들의 모습이였다. 지배인은 현대화의 목표를 실현하는데 드는 비용을 보충하기 위하여 전구프레임을 수출할 의향까지 제기하는 것이였다. 장사꾼되기는 아직 이르다고 말씀하시는데도 주눅이 들지 않고 현대화를 하자니가 그렇니다 하고 푸짐하게 말씀올리던 배짱치기지배인의 모습이 장군님의 마음속에서 떠나지 않았다. 얼마 되지 않는 자금을 가지고 나라의 CNC화를 시작하시던 때의 아픔이 아직도 가시지 않은 그의 마음속에 나라의 자금문제는 여전히 떠날줄 모르는 근심을 남기고있었다.

《CNC화를 해야 하오. CNC는 해볼수목 재미있고 멋있소. 그 기세로 CNC화를 계속 내밀어봅시다.》 장군님의 말씀에 새 힘이 솟아 지배인이 한결을 나갔다. 《장군님, 이제는 자신있습니다. 남의 신세를 지지 않고 우리 힘으로 하였습니다. 우리를 외국에까지 보내어 눈을 띄우려 심을 밟고 하였습니다.》 자기의 힘을 믿고 일떠서는 로동계급의 새로운 모습을 마음속에 새기시며 장군님께서는 만면에 환한 웃음을 지으시

었다. 《CNC화를 다한 다음에 다시 와보겠소. 오늘 내가 용광로에다 <크스>를 넣었소.》 장군님께서는 수행한 모든 일군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승용차에 오르시었다. 용광로에 크스를 넣었소! 일군들의 마음속에 장군님의 이 말씀이 깊은 여운을 남기었다. 로동계급의 손에 쥐여주신 라남의 불길기 CNC화로 더 거세하게 라오르도록 해야 한다는것을 강조하시는 말씀이였다.

이 줄게 되는데 이 문제를 정확히 해결해야 한다는것을 실례를 들어 깨우쳐주시었다. 《내가 다른 공장들에서 설비현대화를 한 후에 로력이 얼마나 줄었는가 물어보았소. 그런데 대답을 하는것을 보니 한 20~30%쯤 줄었다는거요.》 일군들은 그 말씀을 다시 새겨보았다. 《20~30%요?》 그것이 무슨 문제로 되었을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 일군들의 표정에서 심리상태를 충분히 헤아리신듯 그이께서는 계속 말씀을 이으시었다. 《그저 20~30%라고 하면 정확한 수자를 알수가 있는가. 그래서 내가 정확히 몇명을 줄였는가고 하니 대답을 못하셨습니다.》

## 재미있는 CNC

현장은 그의 교실과도 같았다. 일단 말을 들어놓으시면 어느 한 공경도 그저 지나지 않으시었다. 경에하는 장군님께서는 기계의 움직임에 골몰히 주의를 돌리시었다. 《장군님, 이쪽에서 더 잘 보입니다.》 지배인이 귀속말로 아뢰는 말이였다. 장군님께서는 자리를 옮겨가시면서도 기계의 동작과정에서 눈길을 떼지 못하시었다. 《제품이 어떻게 뺏집니까?》 장군님의 물음이었다. 《왕복대에 있는 두개의 이빨이 제품을 걸고 이동하면서 뺏습니다. 다음 로라를 타고 뒤쪽끝까지 나옵니다.》 설명을 드리키 바쁘게 또 새로운 물음이었다. 《제품을 어떻게 들니까?》 그 물음에 책임비서가 대답을 드리었다. 《기중기로 들입니다.》

《제품이 어떻게 뺏집니까?》 장군님의 물음이었다. 《왕복대에 있는 두개의 이빨이 제품을 걸고 이동하면서 뺏습니다. 다음 로라를 타고 뒤쪽끝까지 나옵니다.》 설명을 드리키 바쁘게 또 새로운 물음이었다. 《제품을 어떻게 들니까?》 그 물음에 책임비서가 대답을 드리었다. 《기중기로 들입니다.》

《제품이 어떻게 뺏집니까?》 장군님의 물음이었다. 《왕복대에 있는 두개의 이빨이 제품을 걸고 이동하면서 뺏습니다. 다음 로라를 타고 뒤쪽끝까지 나옵니다.》 설명을 드리키 바쁘게 또 새로운 물음이었다. 《제품을 어떻게 들니까?》 그 물음에 책임비서가 대답을 드리었다. 《기중기로 들입니다.》

《제품이 어떻게 뺏집니까?》 장군님의 물음이었다. 《왕복대에 있는 두개의 이빨이 제품을 걸고 이동하면서 뺏습니다. 다음 로라를 타고 뒤쪽끝까지 나옵니다.》 설명을 드리키 바쁘게 또 새로운 물음이었다. 《제품을 어떻게 들니까?》 그 물음에 책임비서가 대답을 드리었다. 《기중기로 들입니다.》

이 공장의 일군들은 위대한 장군님의 조치로 외국에 갔다온 후 앞선 기술에 대한 새로운 감각을 가지게 되었다. 그리하여 이들은 앞선 기술을 우리의 실정에 맞게 적용하여 CNC화된 새로운 기계설비를 설계하였던것이다. 당장은 자금사정으로 하여 유압사보장치로 만들었다고 지배인이 솔직히 말씀드러었다. 유압사보장치로 하면 기틀판리카 좀 시끄러우나 돈은 적게 든다고 하는 지배인의 말이 결정이었다. 말끝마다 돈, 돈 하는 지배인의 이야기가 듣는 사람들의 마음을 불안하게 하였다. 그러지 않아도 고난을 겪으시는 경에하는 장군님께 최중스러웠던것이다. 설명을 시작한 첫시작부터 어느 기계는

이 공장의 일군들은 위대한 장군님의 조치로 외국에 갔다온 후 앞선 기술에 대한 새로운 감각을 가지게 되었다. 그리하여 이들은 앞선 기술을 우리의 실정에 맞게 적용하여 CNC화된 새로운 기계설비를 설계하였던것이다. 당장은 자금사정으로 하여 유압사보장치로 만들었다고 지배인이 솔직히 말씀드러었다. 유압사보장치로 하면 기틀판리카 좀 시끄러우나 돈은 적게 든다고 하는 지배인의 말이 결정이었다. 말끝마다 돈, 돈 하는 지배인의 이야기가 듣는 사람들의 마음을 불안하게 하였다. 그러지 않아도 고난을 겪으시는 경에하는 장군님께 최중스러웠던것이다. 설명을 시작한 첫시작부터 어느 기계는

이 공장의 일군들은 위대한 장군님의 조치로 외국에 갔다온 후 앞선 기술에 대한 새로운 감각을 가지게 되었다. 그리하여 이들은 앞선 기술을 우리의 실정에 맞게 적용하여 CNC화된 새로운 기계설비를 설계하였던것이다. 당장은 자금사정으로 하여 유압사보장치로 만들었다고 지배인이 솔직히 말씀드러었다. 유압사보장치로 하면 기틀판리카 좀 시끄러우나 돈은 적게 든다고 하는 지배인의 말이 결정이었다. 말끝마다 돈, 돈 하는 지배인의 이야기가 듣는 사람들의 마음을 불안하게 하였다. 그러지 않아도 고난을 겪으시는 경에하는 장군님께 최중스러웠던것이다. 설명을 시작한 첫시작부터 어느 기계는

이 공장의 일군들은 위대한 장군님의 조치로 외국에 갔다온 후 앞선 기술에 대한 새로운 감각을 가지게 되었다. 그리하여 이들은 앞선 기술을 우리의 실정에 맞게 적용하여 CNC화된 새로운 기계설비를 설계하였던것이다. 당장은 자금사정으로 하여 유압사보장치로 만들었다고 지배인이 솔직히 말씀드러었다. 유압사보장치로 하면 기틀판리카 좀 시끄러우나 돈은 적게 든다고 하는 지배인의 말이 결정이었다. 말끝마다 돈, 돈 하는 지배인의 이야기가 듣는 사람들의 마음을 불안하게 하였다. 그러지 않아도 고난을 겪으시는 경에하는 장군님께 최중스러웠던것이다. 설명을 시작한 첫시작부터 어느 기계는

이 공장의 일군들은 위대한 장군님의 조치로 외국에 갔다온 후 앞선 기술에 대한 새로운 감각을 가지게 되었다. 그리하여 이들은 앞선 기술을 우리의 실정에 맞게 적용하여 CNC화된 새로운 기계설비를 설계하였던것이다. 당장은 자금사정으로 하여 유압사보장치로 만들었다고 지배인이 솔직히 말씀드러었다. 유압사보장치로 하면 기틀판리카 좀 시끄러우나 돈은 적게 든다고 하는 지배인의 말이 결정이었다. 말끝마다 돈, 돈 하는 지배인의 이야기가 듣는 사람들의 마음을 불안하게 하였다. 그러지 않아도 고난을 겪으시는 경에하는 장군님께 최중스러웠던것이다. 설명을 시작한 첫시작부터 어느 기계는

이 공장의 일군들은 위대한 장군님의 조치로 외국에 갔다온 후 앞선 기술에 대한 새로운 감각을 가지게 되었다. 그리하여 이들은 앞선 기술을 우리의 실정에 맞게 적용하여 CNC화된 새로운 기계설비를 설계하였던것이다. 당장은 자금사정으로 하여 유압사보장치로 만들었다고 지배인이 솔직히 말씀드러었다. 유압사보장치로 하면 기틀판리카 좀 시끄러우나 돈은 적게 든다고 하는 지배인의 말이 결정이었다. 말끝마다 돈, 돈 하는 지배인의 이야기가 듣는 사람들의 마음을 불안하게 하였다. 그러지 않아도 고난을 겪으시는 경에하는 장군님께 최중스러웠던것이다. 설명을 시작한 첫시작부터 어느 기계는

##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 김영남동지 미국 AP통신사 총사장 일행을 만났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 김영남동지는 11일 만수대의



##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 김영남동지 모리셔스공화국 대통령에게 축전을 보내었다

포트 루이스 모리셔스공화국 대통령 아니루드 쥬그노스 각하 나는 모리셔스독립 43돐과 모리셔스공화국선로 199돐에 즈음하여 당신과 귀국정부와 인민에게 열렬한 축하를 보냅니다. 나는 우리 두 나라사이의 친선협조관계가 앞으로 더욱 강화발전되리라고 확신하면서 나라의 사회경제적안정과 발전을 이룩하기 위한 당신과 귀국인민의 노력에서 보다 큰 성과가 있을것을 중심으로 축원합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 김영남

##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을 힘있게

개천탄광 초급당위원회에서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을 힘있게 벌려 성과를 거두고있다. 초급당위원회에서는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 결의목표를 구체적으로 세운데 기초하여 그 실현을 위한 투쟁에 대중을 적극 불러일으키고있다. 초급당일군들은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에 떨쳐나선 단원들이 내러가 생산자대중과 교락을 같이하면서 그들이 결의목표를 행을 위한 투쟁에서 위훈의 창조자가 되도록 이끌어주고있다.

## 주체의 신념, 필승의 의지가 빛발친 역사적인 왕재산회의

김일성민족의 영원한 필승의 보금인 선군의 기지에 대하여 생각할 때면 근 80년전 력사의 땅 왕재산에 굽어선 위대한 수령님의 주체적신념과 의지가 가슴에 안겨와 추추치는 격정을 금치 못하는 우리 군대와 인민이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었다.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력사는 만대에 길이 빛날 투쟁과 업적으로 사뭇아진 영광의 력사이며 만사람의 가슴을 격동시키는 생활과 투쟁의 불멸의 교과서입니다.》

바로 그러한 시기에 조선의 혁명가들이 조선의 해방을 위하여 싸우는것을 그 누구도 빼앗을수 없는 신생불가침의 권리로 간주하고 주체의 신념과 의지로 걸고나 조국애로의 진출을 단행하신 우리 수령님이시이다. 력사의 그날 불빛길은 왕재산에 오르시어 아득하게 펼쳐진 조국산천을 바라보는 위대한 수령님의 심중에서 뜨겁게 고백되었는 무엇이였으랴. 그것은 일제의 가혹한 통치밑에서 울려오던 정지공작원들을 만나서 국내행 편과 혁명조직들의 활동정형을 구체적으로 료해하신 다음 력사적인 왕재산 회의를 소집하시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회의에서 《무장투쟁을 국내에서 확대발전시키기 위하여》라는 연설을 하시었다.

지역에 반유격구를 튼튼히 꾸리고 반 일민족통일전선의 기치밑에 전민족을 하나의 정치적력량으로 튼튼히 묶어세우며 당장전진비사업을 활력있게 추진하기 위한 과업 등을 명철하게 밝혀주신 위대한 수령님. 마디마디에 주체의 신념이 넘쳐나고 민족자주정신이 맥박치는 우리 수령님의 고귀한 가르침을 받아안으며 회의참가자들의 가슴은 조선혁명의 밝은 앞날에 대한 확신으로 얼마나 새차게 끓어번지였던가. 정령 그것은 조선혁명의 주인은 조선인이며 조선인민자체의 힘으로 조국해방의 새날을 안아오시려는 결세의 애국자이신 우리 수령님께서만이 제시하시실수 있는 가장 혁명적이며 주체적인 방침이였다.

우리 혁명력사에서 류례없이 준엄하였던 지난 고난의 행군, 강행군시기는 물론 시련의 언덕을 수없이 넘어 헤치신 나날에 주체로 심장을 끓이시며 선군의 기치밑에 승리만을 아로새기신 왕재산 위대한 수령님이다. 최악의 역경을 순경으로 전환시켜가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장군님께서는 자신의 애국부흥한 선군의 길을 어떻게 피력하시었다. 내가 늘 말하지만 나는 당과 군대를 믿어주고 주체의 혁명위업을 끝까지 완성하고 한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유산으로 물려주신 내 나라, 내 조국을 이 세상에서 가장 부강하고 살기 좋은 인민의 지상락원으로, 사회주의강국으로 만드는것이 나의 리상이고 결심이다. ... 회세의 전설적영웅이신 경에하는 장군님의 절대신념의 신념과 의지가 그대로 우리 군대와 인민의 심장속에 불타는 맹세로 새겨졌기에 제국주의자들의 악랄한 반공공작책들은 결말마다 산산조각나고 승리의 령명이 찬란히 밝아왔다.

## 인민의 행복을 꽃피우시는 길에서

하 나의 편지들에도 주제 62 (1973)년 5월 어느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강서편직공장을 찾으시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공장을 찾으신데는 사연이 있었다. 전날이었다. 온천군을 편지해서 지도하고 계신데 위대한 수령님께서 어느 한 집에 들리시었다. 살림살이를 구체적으로 료해하시던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집주인인 아주머니와 아이들이 입은 옷을 보시고 도의 책임일군에게 인민들에게 한데 옷을 몇벌씩 공급하는가고 물으시었다. 일군의 대답을 들으신 위대한 수령님께서

가운데 편지들을 가지고 치마도 해주고 저고리도 해입히고 별것을 다할수 있지 않는가고 하시며 매일 아무리 바빠도 강서편직공장에 가고 하시었다. 이렇게 되어 위대한 수령님께서 우리 인민들에게 한가지 옷이라도 더 많이, 더 좋게, 더 훌륭하게로 해입히시려는 승고한 사랑을 안으시고 공장을 찾으시였던 것이다. 이날 위대한 수령님께서 는 계절에 따라 인민들에게 편지옷을 만들어 보내주도록 은정어린 조치도 취해주시었다.

시고 공금제도 바로세워 주시였으며 공장관리운영에서 나서는 문제들을 다 풀어주시고셔야 공장을 떠나시었다. 《인민의 행복을 꽃피우시는 길에서》라는 제목으로 주제 67 (1978)년 7월 어느날 위대한 수령님께서 한 어딘담새상점을 찾으시였을 때의 일이다. 과일매대를 돌아보신데 이어 여러 매대를 거쳐 가공김치매대에 이르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만족하신 미소를 지으시며 상점책임자에게 주인들이 김치를 잘 사가라고 물으시었다. 그의 대답을 들으신 위대한 수령님께서

만들어 팔아야 한다 고 강조하시었다. 인민을 위해 일한 자그마한 소행을 보시고도 그처럼 기뻐하시며 분에 넘치는 치하의 말씀을 하시는 어버이수령님을 우리처럼 그는 가슴뜨거움을 금치 못하였다. 평범한 과일담새상점에까지 들리니 커이외이심정으로 남새가격도 물어보시고 주민한사람담새공금량도 알아보시며 너무나 심혈과 로고를 바치시는 어버이수령님, 정령 우리 수령님은 커가는 인민의 행복속에서 더없는 기쁨과 락을 찾으시며 헌신의 자욱을 새겨가신 위대한 어버이이시었다. 본사기자

# 경제강국건설에서 과학기술을 중심고리로 틀어쥐고나가자

## 첨단기술도입의 적극적인 선도자가 될 때

## 현실발전의 절박한 요구

나라의 위대한 발전시비생산기지인 대안중기연합기업소에서 총공력전의 해인 올해에 비약적인 생산성파동이 이룩되고 있다. 특히 지난 2월말까지 최전 호발전소에 보낼 대규모 수력발전설비들의 타인, 발전기생산을 빛나게 계속하여 기업소의 최고생산년도수준을 돌파한 것은 뜻밖이 내놓고 자랑찬만한 기적적인 성과이다.

얼마전 이곳을 찾았던 우리는 과학기술과 생산을 밀접히 결합시켜 혁신적인 성과를 얻어온 기업소인민들의 진취적인 사업태도와 기풍에서 몇가지 주목되는 점을 찾아보게 되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었다.

《공학, 기업소들에서 선진기술을 적극 받아들이고 여기에 기초하여 생산을 끊임없이 늘여야 합니다.》

과학과 기술이 급속도로 발전하는 오늘 끊임없는 생산성향상을 일으키기 위한 중요한 방향의 하나는 새로운 과학기술성과들을 제때에 받아들이는 데다. 그러자면 자체의 기술력량을 충분히 꾸리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바로 이 점을 중시하고있는 기업소의 인민들은 새로운 과학기술성과의 도입과 과학의 기술력량을 키우고 백방으로

대안중기연합기업소의 과정으로 되게 하는데 선차적힘을 넣었다. 대항공작기계의 CNC화를 실현하기 위한 사업을 방법론있게 내민것이 그 실례이다.

국가과학원 조종기계연구소 연구사들의 도움밑에 기업소에서 처음으로 대형보잉방의 CNC화를 실현하는 사업에 발라붙을 때였다.

실비현대의 주인은 어디까지나 우리들이다. 이번 계기를 통하여 앞으로 그 어떤 대형공작기계의 CNC화도 실현할 수 있는 기술력량을 마련하자.

자배인 정원공부하는 이런 전담포교반에 이치에 꾸러놓는 기업소 컴퓨터실과 현대화실의 역량을 여러 측면에서 보장했다. 실제로 종전에 프로그램작성위주로 구성되었던 컴퓨터실과 함께 리소프동무를 비롯한 기업소의 유능한 기계장치기술자들도 망라시켜 한계 연구개발력량을 꾸리었다. 이와 함께 설비개조를 직접 담당할 뛰어난 현대화실에는 전기장치기술자들을 위주로 기업소의 기계장치숙련을 한이 해두고있는 기술자들을 보장하였다.

이런 면밀한 준비밑에 기업소의 인민들은 그들이 기업소

합기업소 일꾼들의 사업에서 현대화의 주인이라는 높은 책임감을 지니고 조종기계연구소의 연구사들에게서 배우면서 창조적지혜와 열정을 합쳐나가도록 적극 떠밀어주었다.

현장침범이 풍부한 이러한 기술력량이 연구사들의 도움밑에 과학리론적으로 준비되니 대형보잉방의 현대화사업은 예상대로 빨리 진척되었다.

학습적인 문제들과 실천적인 문제들을 서로 배우고 배워주는 과정에 가장 합리적인 2측동시조율을 가장 합리적으로 실현할 수 있는 방안을 비롯하여 어려운 문제들이 하나둘 풀려나고 중앙에는 현대적인 날개가공방의 시운전성공을 안아오고야말았다.

현대화기술을 실현으로 떠돌아다니는 사람들도 있는것을 타산하여 능력있는 기술일꾼을 선발하여 능력있는 기술일꾼은 서둘러 결론을 내리지 않았다. 그날부터 그는 절연물체로 대한 최신패용기공작기계를 연구하는 한편 해당부분의 기술자들도 만나보았다. 이와 함께 그 성공을 반신반의하는 사람들도 있는것을 타산하여 능력있는 기술일꾼을 선발하여 능력있는 기술일꾼은 서둘러 결론을 내리지 않았다. 그날부터 그는 절연물체로 대한 최신패용기공작기계를 연구하는 한편 해당부분의 기술자들도 만나보았다. 이와 함께 그 성공을 반신반의하는 사람들도 있는것을 타산하여 능력있는 기술일꾼을 선발하여 능력있는 기술일꾼은 서둘러 결론을 내리지 않았다. 그날부터 그는 절연물체로 대한 최신패용기공작기계를 연구하는 한편 해당부분의 기술자들도 만나보았다.

일꾼의 목소리는 절절하였다. 변합기업소당조직의 적극적인 지지밑에 지체없이 절연체연구소의 기술자들로 해당 역량이 조직되고 생산기지를 꾸리는 사업이 활발히 벌어졌다. 그로부터 얼마후 나노세료를 리용한 금수높은 절연물생산을 국가과학원의 한 연구사가 개발한 나노세료를 리용하여 자체의 힘으로 생산할수 있는 것이었다.

오래전부터 기업소위원회에서 금수높은 절연물생산을 위한 사업을 진행하고있는지라 기업소책임일꾼은 서둘러 결론을 내리지 않았다. 그날부터 그는 절연물체로 대한 최신패용기공작기계를 연구하는 한편 해당부분의 기술자들도 만나보았다. 이와 함께 그 성공을 반신반의하는 사람들도 있는것을 타산하여 능력있는 기술일꾼을 선발하여 능력있는 기술일꾼은 서둘러 결론을 내리지 않았다. 그날부터 그는 절연물체로 대한 최신패용기공작기계를 연구하는 한편 해당부분의 기술자들도 만나보았다.

◇ 내 나라, 내 조국땅에서 세차게 휘몰아치는 최첨단발전의 열풍속에 문명화된 공구생산지 운산공공장이 일어났다. 지식경제시대의 문명을 보여주는 운산공공장의 새 모습은 CNC화가 융복합 실현된 최첨단과학기술의 열풍을 상징하고 있다.

CNC기술의 패권을 틀어쥐고 온 나라의 CNC에서 핵심적역할을 수행하고있는 현탁기계연구소의 책임일꾼은 짧은 기간에 최첨단과학기술의 열풍을 그려내고 있다.

《기계공부부문 로동제급의 무한한 정진력 에 현대과학기술이 결합된 결과입니다. 과학기술과 생산의 일체화, 바로 여기에 우리가 비약적인 성공의 길을 걸은 중요한 비결의 하나가 있습니다.》

그렇다. 현대과학기술을 기초한 자력갱생의 기치높이 최첨단의 과학기술성과를 생산에 적극 받아들여 종전에는 생각지도 못했던 자랑찬 성과를 이룩하며 전진하는것이 바로 경제강국으로 돌진하는 내 조국의 참모습이다.

◇ 과학기술과 생산을 더욱더 밀접히 결합시키는것은 오늘의 총공력전의 절박한 요구이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었다.

《현시대에 과학기술이 생산이고 생산이자 과학기술이라고 말할수 있습니다.》

사회경제생활에서 과학기술의 역할이 비상히 높아짐에 따라 과학기술과 생산이 밀접하게 융복합되는것이 현대과학기술발전의 세계적추세로, 현대산업의 중요한 특징으로 되고 있다. 정보산업시대 오늘날에 와서 생산과 동떨어진 순수 과학기술에 대하여 이야기할수 없으며 또 과학기술성과들은 생산실현에 즉시 도입되어야만 실지로 자기의 사명을 다한다고 말할수 있다.

올해의 총공력전의 기본전선은 경제전선이다. 우리의 과학기술은 오늘날 생산과 밀접히 결합되어 경제강국건설의 위력한 추동력으로, 경제강국건설에서 대조전전속도를 높이는 중요한 담보로 될수 있다.

선진과학기술을 타고 내 나라, 내 조국땅에 자력갱생의 강성대국을 보란듯이 최첨단과학기술을 도입하여 힘있게 전진하는것이 바로 경제강국으로 돌진하는 내 조국의 참모습이다.

◇ 인민경제 모든 부문, 모든 단위의 일꾼들과 로동제급은 우리 당의 최첨단과학기술을 높이 받들고 현대과학기술성과들을 생산실현에 제때에 받아들이기 위한 사업에 한사람같이 떨쳐나서야 한다.

당면한 생산에만 치우치면서 과학기술을 흘려보내는 판결과 일분새를 철저히 극복하여야 한다.

김철과 성장, 강선의 야금기기술을 비롯하여 위대한 장군님의 현저지도상승에서 이룩된 자랑찬 성과들은 과학기술발전기풍으로 이어오는 열매이다.

누구나 현대과학기술의 적극적인 도입을 떠나서는 생산과 기술개전의 성과에 대하여 생각조차 할수 없다는것을 명심하고 과학기술에 의거하여 오늘의 총공력전의 불길을 세차게 지퍼올려야 한다.

생산단위의 책임일꾼들이 과학연구기관들과의 긴밀한 면제에 자기 부문, 자기 단위와 관련이 있는 최신패용기공작기계를 대담하게 적극적으로 받아들여야 한다.

일꾼들은 실력이나 실적이 있고 실력이 있는것을 명심하고 자기 부문, 자기 단위의 현대과학기술을 깊이 파악하고 그에 기초하여 과학연구기관들과의 면제를 바탕으로 강화해나가야 한다. 새 기술도입에 떨쳐나선 현장기술자, 기능공들과 과학자들의 사업조건, 생활조건을 우선적으로 보장하며 대중을 기술혁신투쟁으로 적극 불러일으켜 밀려마다에서 최첨단과학기술이 세차게 몰아치게 하여야 한다.

### 평양화장품공장에서

얼마전 평양화장품공장을 찾은 우리는 화장품직장현장에서 로동자들과 열심히 과학기술적 문제를 놓고 토론하는 한 기술 일꾼을 만났다.

그는 우리에게 동양사설을 받들고 공장의 과학자, 기술자들이 현장에서 로동자들과 함께 창조적지혜를 합치기 위한 시기에 과학이 기술혁신성과들이 빨리 생산에 도입되고있다고 자랑담아 말하였다.

그러면서 문득 공장에서 기술준비실과 기술연구실을 하나로 합쳐서 기술혁신투쟁을 더욱 힘있게 벌리고있다고 이야기하는것이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었다.

《로동자들과 과학자, 기술자들의 창조적열정을 강화하는것은 기술혁신투쟁에서 우리 당이 견지하고 있는 일관된 방침입니다.》

우리는 현장에서 만난 기술일꾼과 함께 기술준비실을 찾았다.

그곳에서는 연구사들과 기술자들이 협동하여 현실적의가 크면서도 공장의 구체적 실정에 맞는 연구과제를 설정하고 그것을 빠른 시일안에 실현하기 위해 서로의 창조적 지혜를 합쳐가고있다.

공장에 머리엍씩 크림을 비롯한 새 제품을 개발하였다. 연구사 박영년, 김영성, 류경순동무들은 중앙과학기술 홍보사와의 긴밀한 면제밑에

최신패용기공작기계를 짧은 기간에 연구하고 기술준비실 차장, 분석공 문봉희동무들은 필요한 자료를 놓고 서로 진지하게 토론하면서 현장에 받아들이기 위한 사업을 립체적으로 벌리었다.

기술준비실 실장 강민심 동무의 말에 의하면 이렇게 제 제품을 개발하기 위하여 연구사들과 기술자들이 합심하여 지혜를 합치게 된 짧은 기간에 좋은 연구성과를 거둘수 있을뿐만아니라 그 결과를 제장 생산에 받아들일수 있어 여러모로 효율적이 라는것이였다.

공장에서는 기술준비실과 기술연구실을 하나로 통합하여 과학자, 기술자들과 로동자들과의 접촉적지혜를 합치는 데서 얻은 좋은 경험에 기초하여 그들의 과학연구조건과 생산도입조건을 충분히 보장해주고있다.

공장정보에서는 과학기술향상위원회와 기술혁신회를 자주 조직하여 서로의 창조적 지혜와 경험을 나누도록 하는 것과 함께 가치있는 기술 혁신안과 장의고안을 내놓는 로동자, 기능공들을 적극 찾아내어 기술준비실의 역량을 강화하는데 융합한 관심을 돌려주고있다.

지금도 그렇지만 앞으로 평양화장품공장에서 새로 생산되게 될 제품들은 인기상품이 되어 우리 인민들속에서 커다란 호평을 받게 될것이다.

박유정

### 기술기능수준을 높인 비결

#### 복합화력발전연합기업소에서

이것은 많은 일꾼들과 기술자들의 지지를 받았다. 이렇게 되어 몇해전에 모의시험현장이 새로 생겨나게 되었다. 그런데 처음에는 운영단위 로동자, 기술자들속에서 별로 호기심을 끌지 못하였다.

원인은 무엇인가. 기업소참모부일꾼들은 즉시에 현장을 내려갔다. 담당기사들과 로동자들속에서 의견을 충분히 종합하는 과정에 교훈을 찾게 되었다.

승리는 전투전에 마련되듯이 훈련을 앞두고 사전준비를 어떻게 갖추는가 하는것이 중요하였다. 한마디로 실천의 분위기에서 훈련을 진행할수 있도록 준비를 잘하고 모의시험의 날을 실속있게 운영하는 것이였다.

이 사업을 직접 담당할 금전 사령실에서는 모의시험준비계획을 월별, 일별로 치밀하게 세우는 한편 일의 순간에 정황에 따라 부분별로 진행할수 있게 하였다.

기업소의 실정에 맞게 미리 준비한 제장에 기초하여 운영공, 조작공, 담당기사들을 참가시켜 구체적으로 각이한 과제를 어떻게 대응하겠는가 맡길 실책해준 후 훈련을 실속있게 하게 하고 그에 대한 평가사업도 잘해나도록 하였다. 기업소에서는 모의시험훈련장들을 순회하는 실사업으로서가 아니라 당의 과학 기술중시토선을 관철하는 중요한 사업으로 내뒀다.

올해 1월초 보이콧운동원들의 모의시험훈련을 진행할 때였다. 기업소참모부에서는 겨울철조건에 맞는 합리적인 불살이방법을 받아들이기 위한 제강을 지밀하게 만든 기초수에서 이같은 훈련을 진행하였다. 훈련에서는 유능한 운영공들이 먼저 출연하였다. 그들은 나이런 운전공들에게 계기들을 관찰하고 합리적인 처방을 내리는 방법을 하나하나 배워주었다. 나이런 운전공들은 그들의 동작을 주의깊게 살피면서 훈련장에서 지체없이 동작을 해보았다.

실전의 분위기속에서 진행되는 모의시험훈련은 짧은 기간에 운영공, 조작공들모두가 과학기술을 깊이 파악할수 있게 함으로써 실전에서 크게 은을 내고있다.

올해에 들어와 7호기와 8호기의 조작공, 운영공, 담당기사들이 모의시험훈련에서 배운 지식과 경험에 기초하여 각이한 정황에 따르는 합리적인 운영방법을 받아들인것을 비롯하여 기술혁신투쟁을 힘있게 벌려 성과를 거두고있다.

금전의 전력생산기지인 복합화의 로동제급은 공동사설의 전 투격과정을 높이 받들고 과학 기술로 무장하기 위한 사업을 적극 벌려 전력증산의 동용을 더 높이 올려갈 심신과 열정에 넘쳐있다.

본사기자 명홍숙

### 우리 식 사회주의의 우월성과 정보산업의 발전

정보산업이 발전되어도 민부의 차이와 실업과 같은 자본주의사회의 불치의 병은 해결될수 없다. 따라서 자본주의사회의 근로자층은 정보산업의 발전에 절신히 리해관계를 가지지 않게 된다.

우리 당의 령도밑에 인민중중심의 우리 식 사회주의사회에서는 정보산업이 철저히 인민대중의 자조적요구를 실현하기 위한것으로서 발전하고있다. 우리 조국땅에서는 하나의 프로그램발도, 인민경제의 현대화, 정보화도 조국의 번영과 인민의 행복을 위한것으로 되고있다.

우리의 모든 정보기술수단들은 인민들의 건전한 문화정서생활에 적극 리용되고있다. 과학기술, 정보산업의 발전이 곧 인민의 복리복락으로 이어지고있는 여기에 우리 식 사회주의의 참다운 우월성이 있다.

우리 사회에서 인민들은 정보산업의 발전에 대하여 절실한 리해관계를 가지고있다. 그것은 정보산업 발전이 인민들을 어렵고 로동에서 행방하고 근로자들에게 보다 나은 혜택을 인민대중의 복리복락에 이바지하고있기 때문이다. 우리 당에서는 대중의 창조적힘을 본보리 조직동원할수 있기때문에 정보산업을 빨리 발전시킬수 있는 유리한 조건을 가지고있다.

인민대중이 모든것의 주인으로 되고 모든것이 인민을 위하여 복무하는 우리 식 사회주의사회에서 정보산업은 더욱 발전할것이다.

우리 나라 사회주의 사회는 교양사업을 끊임없이 개선강화하여 정보산업을 비약적으로 발전시켜나갈수 있게 하는 우월한 사회이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로직에서 우리 나라에서는 교육사업도 발전되었기때문에 정보산업을 빨리 발전시킬수 있는 유리한 조건을 가지고있으며 이러한 우월성을 유출해가는 하나의 프로그램발도, 인민경제의 현대화, 정보화도 조국의 번영과 인민의 행복을 위한것으로 되고있다.

정부는 모든 정보기술수단들을 인민들의 건전한 문화정서생활에 적극 리용되고있다. 과학기술, 정보산업의 발전이 곧 인민의 복리복락으로 이어지고있는 여기에 우리 식 사회주의의 참다운 우월성이 있다.

우리 사회에서 인민들은 정보산업의 발전에 대하여 절실한 리해관계를 가지고있다. 그것은 정보산업 발전이 인민들을 어렵고 로동에서 행방하고 근로자들에게 보다 나은 혜택을 인민대중의 복리복락에 이바지하고있기 때문이다. 우리 당에서는 대중의 창조적힘을 본보리 조직동원할수 있기때문에 정보산업을 빨리 발전시킬수 있는 유리한 조건을 가지고있다.

인민대중이 모든것의 주인으로 되고 모든것이 인민을 위하여 복무하는 우리 식 사회주의사회에서 정보산업은 더욱 발전할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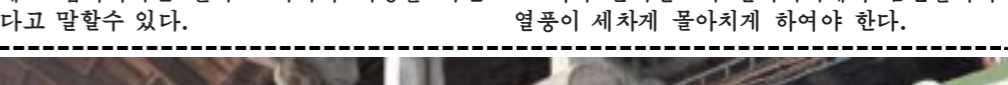
우리 나라 사회주의 사회는 교양사업을 끊임없이 개선강화하여 정보산업을 비약적으로 발전시켜나갈수 있게 하는 우월한 사회이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로직에서 우리 나라에서는 교육사업도 발전되었기때문에 정보산업을 빨리 발전시킬수 있는 유리한 조건을 가지고있으며 이러한 우월성을 유출해가는 하나의 프로그램발도, 인민경제의 현대화, 정보화도 조국의 번영과 인민의 행복을 위한것으로 되고있다.

정부는 모든 정보기술수단들을 인민들의 건전한 문화정서생활에 적극 리용되고있다. 과학기술, 정보산업의 발전이 곧 인민의 복리복락으로 이어지고있는 여기에 우리 식 사회주의의 참다운 우월성이 있다.

우리 사회에서 인민들은 정보산업의 발전에 대하여 절실한 리해관계를 가지고있다. 그것은 정보산업 발전이 인민들을 어렵고 로동에서 행방하고 근로자들에게 보다 나은 혜택을 인민대중의 복리복락에 이바지하고있기 때문이다. 우리 당에서는 대중의 창조적힘을 본보리 조직동원할수 있기때문에 정보산업을 빨리 발전시킬수 있는 유리한 조건을 가지고있다.

인민대중이 모든것의 주인으로 되고 모든것이 인민을 위하여 복무하는 우리 식 사회주의사회에서 정보산업은 더욱 발전할것이다.



서로의 창조적지혜와 열정을 합쳐가며 대상설비생산을 다그치고있다. - 로동제급원 합기업소에서 - 본사기자 장영일 특약

얼마전 라만판기계련합기업소에 대한 취재에서였다. 최첨단을 통과한 대항 공작의 사양을 높이 받들어 과학기술을 중시하고 과학향 공작전을 벌려 마련한 귀중한 열매였다. 《특히 하나만 가지고서야 어이할지라도 높은 목적을 내세우고 과감한 공격전을 벌리고있다.》

실비현대의 주인은 어디까지나 우리들이다. 이번 계기를 통하여 앞으로 그 어떤 대형공작기계의 CNC화도 실현할 수 있는 기술력량을 마련하자. 자배인 정원공부하는 이런 전담포교반에 이치에 꾸러놓는 기업소 컴퓨터실과 현대화실의 역량을 여러 측면에서 보장했다. 실제로 종전에 프로그램작성위주로 구성되었던 컴퓨터실과 함께 리소프동무를 비롯한 기업소의 유능한 기계장치기술자들도 망라시켜 한계 연구개발력량을 꾸리었다. 이와 함께 설비개조를 직접 담당할 뛰어난 현대화실에는 전기장치기술자들을 위주로 기업소의 기계장치숙련을 한이 해두고있는 기술자들을 보장하였다.

이런 면밀한 준비밑에 기업소의 인민들은 그들이 기업소 합기업소 일꾼들의 사업에서 현대화의 주인이라는 높은 책임감을 지니고 조종기계연구소의 연구사들에게서 배우면서 창조적지혜와 열정을 합쳐나가도록 적극 떠밀어주었다.

현장침범이 풍부한 이러한 기술력량이 연구사들의 도움밑에 과학리론적으로 준비되니 대형보잉방의 현대화사업은 예상대로 빨리 진척되었다.

학습적인 문제들과 실천적인 문제들을 서로 배우고 배워주는 과정에 가장 합리적인 2측동시조율을 가장 합리적으로 실현할 수 있는 방안을 비롯하여 어려운 문제들이 하나둘 풀려나고 중앙에는 현대적인 날개가공방의 시운전성공을 안아오고야말았다.

현대화기술을 실현으로 떠돌아다니는 사람들도 있는것을 타산하여 능력있는 기술일꾼을 선발하여 능력있는 기술일꾼은 서둘러 결론을 내리지 않았다. 그날부터 그는 절연물체로 대한 최신패용기공작기계를 연구하는 한편 해당부분의 기술자들도 만나보았다. 이와 함께 그 성공을 반신반의하는 사람들도 있는것을 타산하여 능력있는 기술일꾼을 선발하여 능력있는 기술일꾼은 서둘러 결론을 내리지 않았다. 그날부터 그는 절연물체로 대한 최신패용기공작기계를 연구하는 한편 해당부분의 기술자들도 만나보았다.

일꾼의 목소리는 절절하였다. 변합기업소당조직의 적극적인 지지밑에 지체없이 절연체연구소의 기술자들로 해당 역량이 조직되고 생산기지를 꾸리는 사업이 활발히 벌어졌다. 그로부터 얼마후 나노세료를 리용한 금수높은 절연물생산을 국가과학원의 한 연구사가 개발한 나노세료를 리용하여 자체의 힘으로 생산할수 있는 것이었다.

오래전부터 기업소위원회에서 금수높은 절연물생산을 위한 사업을 진행하고있는지라 기업소책임일꾼은 서둘러 결론을 내리지 않았다. 그날부터 그는 절연물체로 대한 최신패용기공작기계를 연구하는 한편 해당부분의 기술자들도 만나보았다. 이와 함께 그 성공을 반신반의하는 사람들도 있는것을 타산하여 능력있는 기술일꾼을 선발하여 능력있는 기술일꾼은 서둘러 결론을 내리지 않았다. 그날부터 그는 절연물체로 대한 최신패용기공작기계를 연구하는 한편 해당부분의 기술자들도 만나보았다.

◇ 내 나라, 내 조국땅에서 세차게 휘몰아치는 최첨단발전의 열풍속에 문명화된 공구생산지 운산공공장이 일어났다. 지식경제시대의 문명을 보여주는 운산공공장의 새 모습은 CNC화가 융복합 실현된 최첨단과학기술의 열풍을 상징하고 있다.

CNC기술의 패권을 틀어쥐고 온 나라의 CNC에서 핵심적역할을 수행하고있는 현탁기계연구소의 책임일꾼은 짧은 기간에 최첨단과학기술의 열풍을 그려내고 있다.

《기계공부부문 로동제급의 무한한 정진력 에 현대과학기술이 결합된 결과입니다. 과학기술과 생산의 일체화, 바로 여기에 우리가 비약적인 성공의 길을 걸은 중요한 비결의 하나가 있습니다.》

그렇다. 현대과학기술을 기초한 자력갱생의 기치높이 최첨단의 과학기술성과를 생산에 적극 받아들여 종전에는 생각지도 못했던 자랑찬 성과를 이룩하며 전진하는것이 바로 경제강국으로 돌진하는 내 조국의 참모습이다.

◇ 과학기술과 생산을 더욱더 밀접히 결합시키는것은 오늘의 총공력전의 절박한 요구이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었다.

《현시대에 과학기술이 생산이고 생산이자 과학기술이라고 말할수 있습니다.》

사회경제생활에서 과학기술의 역할이 비상히 높아짐에 따라 과학기술과 생산이 밀접하게 융복합되는것이 현대과학기술발전의 세계적추세로, 현대산업의 중요한 특징으로 되고 있다. 정보산업시대 오늘날에 와서 생산과 동떨어진 순수 과학기술에 대하여 이야기할수 없으며 또 과학기술성과들은 생산실현에 즉시 도입되어야만 실지로 자기의 사명을 다한다고 말할수 있다.

올해의 총공력전의 기본전선은 경제전선이다. 우리의 과학기술은 오늘날 생산과 밀접히 결합되어 경제강국건설의 위력한 추동력으로, 경제강국건설에서 대조전전속도를 높이는 중요한 담보로 될수 있다.

선진과학기술을 타고 내 나라, 내 조국땅에 자력갱생의 강성대국을 보란듯이 최첨단과학기술을 도입하여 힘있게 전진하는것이 바로 경제강국으로 돌진하는 내 조국의 참모습이다.

◇ 인민경제 모든 부문, 모든 단위의 일꾼들과 로동제급은 우리 당의 최첨단과학기술을 높이 받들고 현대과학기술성과들을 생산실현에 제때에 받아들이기 위한 사업에 한사람같이 떨쳐나서야 한다.

당면한 생산에만 치우치면서 과학기술을 흘려보내는 판결과 일분새를 철저히 극복하여야 한다.

김철과 성장, 강선의 야금기기술을 비롯하여 위대한 장군님의 현저지도상승에서 이룩된 자랑찬 성과들은 과학기술발전기풍으로 이어오는 열매이다.

누구나 현대과학기술의 적극적인 도입을 떠나서는 생산과 기술개전의 성과에 대하여 생각조차 할수 없다는것을 명심하고 과학기술에 의거하여 오늘의 총공력전의 불길을 세차게 지퍼올려야 한다.

생산단위의 책임일꾼들이 과학연구기관들과의 긴밀한 면제에 자기 부문, 자기 단위와 관련이 있는 최신패용기공작기계를 대담하게 적극적으로 받아들여야 한다.

일꾼들은 실력이나 실적이 있고 실력이 있는것을 명심하고 자기 부문, 자기 단위의 현대과학기술을 깊이 파악하고 그에 기초하여 과학연구기관들과의 면제를 바탕으로 강화해나가야 한다. 새 기술도입에 떨쳐나선 현장기술자, 기능공들과 과학자들의 사업조건, 생활조건을 우선적으로 보장하며 대중을 기술혁신투쟁으로 적극 불러일으켜 밀려마다에서 최첨단과학기술이 세차게 몰아치게 하여야 한다.

### 우리 식 사회주의의 우월성과 정보산업의 발전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교전적로작 《새 세기, 21세기에는 정보산업의 시대이다》를 발표하신 때로부터 10년이 되었다.

주제 90 (2001)년 3월 11일에 발표된 이 로작은 21세기 사회경제발전의 합법적성을 명철하게 밝히고 자수정성을 위한 인민대중의 협력투쟁리론을 발전홍부화시킨 기념비적문헌이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었다.

《우리 식 사회주의는 정보산업을 발전시키는데서도 결정적 우월성을 가지고있습니다.》

현대과학기술을 기초한 국가경제력의 발전은 사회주의의 우월성에 의하여 담보된다. 집단주의를 생명으로 하는 인민대중중심의 우리 식 사회주의사회는 21세기 정보산업의 발전을 힘있게 추동하는 가장 우월한 사회이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로작에서 정보산업시대의 본질과 특징, 사회경제적전모를 이룩하는데서 정보기술이 노는 역할과 자본주의사회의 멸망의 불가피성을 해명하는데서 선형리론의 제한성에 대하여 천명하시었다.

그리고 우리 식 사회주의는 정보산업발전에서 결정적우월성을 가지고있다는데 대하여 강조하시고 정보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한 파업과 방도들을 뚜렷이 밝혀주시었다.

로작이 발표된 때로부터 지난 10년간은 당의 현명한 령도밑에 우리 인민이 나라의 정보산업발전 을 위한 투쟁에서 커다란 성과를 이룩해온 금지높은 로정으로 빛나

수많은 과학기술인들이 자라나고 그들이 의하여 정보기술을 비롯한 핵심기초기술이 비약적으로 발전하게 되었으며 CNC기술의 명맥을 확고히 틀어쥐는 눈부신 성과가 이룩되었다.

오늘 우리 조국이 정치사상강국, 군사강국으로뿐만아니라 과학기술강국의 지위에 당당히 올라서게 된것은 21세기 정보산업의 시대로 명백히 규정하고 최첨단과학기술을 힘있게 이룩해온 우리 당의 현명한 령도의 결실이며 집단주의에 기초한 우리 식 사회주의의 우월성에 대한 힘있는 파사로 된다.

우리 나라 사회주의사회는 인민대중의 자주적요구에 맞게 정보산업을 발전시켜나갈수 있게 하는 가장 우월한 사회이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로작에서 정보산업이 아무리 발전되어도 자본주의사회에서는 인민대중의 자주적요구 실현될수 없으며 오직 사회주의사회에서만 정보산업이 가져다주는 혜택을 인민대중의 복리복락에 이바지하고있기 때문이다. 우리 당에서는 대중의 창조적힘을 본보리 조직동원할수 있기때문에 정보산업을 빨리 발전시킬수 있는 유리한 조건을 가지고있다.

인민대중이 모든것의 주인으로 되고 모든것이 인민을 위하여 복무하는 우리 식 사회주의사회에서 정보산업은 더욱 발전할것이다.

우리 나라 사회주의 사회는 교양사업을 끊임없이 개선강화하여 정보산업을 비약적으로 발전시켜나갈수 있게 하는 우월한 사회이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로직에서 우리 나라에서는 교육사업도 발전되었기때문에 정보산업을 빨리 발전시킬수 있는 유리한 조건을 가지고있으며 이러한 우월성을 유출해가는 하나의 프로그램발도, 인민경제의 현대화, 정보화도 조국의 번영과 인민의 행복을 위한것으로 되고있다.

정부는 모든 정보기술수단들을 인민들의 건전한 문화정서생활에 적극 리용되고있다. 과학기술, 정보산업의 발전이 곧 인민의 복리복락으로 이어지고있는 여기에 우리 식 사회주의의 참다운 우월성이 있다.

우리 사회에서 인민들은 정보산업의 발전에 대하여 절실한 리해관계를 가지고있다. 그것은 정보산업 발전이 인민들을 어렵고 로동에서 행방하고 근로자들에게 보다 나은 혜택을 인민대중의 복리복락에 이바지하고있기 때문이다. 우리 당에서는 대중의 창조적힘을 본보리 조직동원할수 있기때문에 정보산업을 빨리 발전시킬수 있는 유리한 조건을 가지고있다.

인민대중이 모든것의 주인으로 되고 모든것이 인민을 위하여 복무하는 우리 식 사회주의사회에서 정보산업은 더욱 발전할것이다.

민음에 의하여 김일성종합대학, 김책공업종합대학에 전설된 전자도서관과 인민대학당에서 과학탐구의 나배를 활짝 펼치고있는 대학생들과 과학자, 기술자, 근로자들의 모습은 우리 나라 사회주의교육제도에서부터 찾아볼수 있다. 인공 지능시대가 《광명성 2호》의 성과파급사도 주제교육을 받은 우리의 과학자, 기술자들에 의하여 이루어진것이다. 정보기술과 인공지능연구분야의 과학자들의 커다란 관심속에 진행된 국제과학기술대회에서 우리의 청년과학자들이 연속적으로 패권을 쥐는 성과를 이룩한것은 우리 나라 사회주의교육제도의 우월성의 뚜렷한 증시로 된다.

우리 당에 있어서 나라의 기예는 금이나 돈이 아니라 당의 혁명사상으로 투철히 무장한 젊은 세대들이며 인재들이다. 오늘 우리의 과학기술인재들의 심정기대를 분발하고 또 분발하여 위대한 당, 김일성조선을 세계가 우러보게 하려는 열념으로 꼭 착되었다. 승고한 정신과 풍부한 지식을 겸비한 선군혁명의 믿음직한 골간들을 키우게 하려는 우리 나라 사회주의교육제도와 함께 우리들의 현대과학기술, 정보산업이 끊임없이 발전하고있는 것이다.

우리 나라 사회주의는 인민경제의 현대화, 정보화를 계획적으로 추진시키며 최대한의 실리를 보장할수 있게 하는 우월한 사회이다.

사회주의경제는 계획경제이며 정보산업을 계획적으로 실리주의원칙에 맞게 발전시킨다는 사회주의의 우월성이 있다.

시장경제에 기초한 자본주의사회에서는 정보산업이 자본가들의 리원획득의 리로에 맞게 발전하게 된다. 정보산업발전을 위한 인재들과 원료원천들이 합리적으로 쓰이지 못하고 생산수단의 경진주기가 빨라짐에 따라 실업위기가 악화되어 사회적불안정성이 조성되고 있다. 정보산업에 의해서 창조된 재부가 근로자들의 지향과 요구에 맞게 분배되지 못하고 《부익부, 빈익빈》의 랑극분화가 날로 심해지고있는것이 자본주의나라들의 실태이다.

오늘 우리 나라에서는 사회주의계획경제의 요구에 맞게 정보산업 발전에서 계획성과 균형성이 확고히 보장되고있다.

국가의 경제조직직적기능에 의하여 통일적인 정보산업발전계획이 세워지고 정보기술부문에 대한 국가적 투자를 계통적으로 높이고있다. 또 선군혁명의 믿음직한 골간들을 키우게 하려는 우리 나라 사회주의교육제도와 함께 우리들의 현대과학기술, 정보산업이 끊임없이 발전하고있는 것이다.

우리 나라 사회주의는 인민경제의 현대화, 정보화를 계획적으로 추진시키며 최대한의 실리를 보장할수 있게 하는 우월한 사회이다.

사회주의경제건설에서 실리보장

은 사회의 인적, 물질자원을 효과적으로 리용하여 나라와 민족의 부강발전과 인민들에게 실재적인 리득을 주는데 있다. 생산을 보기 전에 사람을 먼저 보고 대중이 경제관리의 주인으로서의 권리를 행사하며 책임과 역할을 다할수 있게 하는것이 사회주의경제관리의 기본 요구이며 실리주의원칙이다.

오늘 우리 나라에서는 경제계획의 의와 실리가 큰 대중들부터 선취자를 바로정하고 인민경제의 현대화, 정보화를 실현해나가고있다.

이미 있는 기계설비들과 생산공정들을 정보기술의 토대에 올려놓을수 있는것을 기본으로 하고 여기에 최신패용기 장비된 현대적공정들을 건설하는것을 배합하고있다.

지식경제시대 첨단산업의 특징이라고 말할수 있는 생산공정의 정보화, 유연화, 다품종화를 실현한 공장, 기업소들이 늘어나고있다. 계획적균형발전법칙과 실리주의원칙을 구현하고있는 우리 나라 사회주의경제제도는 정보산업발전의 초석이다.

정보산업이 발전할수록 자본주의사회는 멸망의 구렁텅이에 더욱 깊이 빠져들어가지만 모든것이 인민을 위하여 복무하는 주체의 우리 식 사회주의는 승승장구하고있다.

모든 일꾼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자기 명예 발을 불리고 높은 세계를 보며 최첨단을 통과하며 현대의 사상을 실현으로 받아들이나감으로써 인민대중중심의 우리 식 사회주의의 우월성을 더욱 높이 발양해나가야 할것이다.

김성룡

정보산업이 발전되어도 민부의 차이와 실업과 같은 자본주의사회의 불치의 병은 해결될수 없다. 따라서 자본주의사회의 근로자층은 정보산업의 발전에 절신히 리해관계를 가지지 않게 된다.

우리 당의 령도밑에 인민중중심의 우리 식 사회주의사회에서는 정보산업이 철저히 인민대중의 자조적요구를 실현하기 위한것으로서 발전하고있다. 우리 조국땅에서는 하나의 프로그램발도, 인민경제의 현대화, 정보화도 조국의 번영과 인민의 행복을 위한것으로 되고있다.

우리의 모든 정보기술수단들은 인민들의 건전한 문화정서생활에 적극 리용되고있다. 과학기술, 정보산업의 발전이 곧 인민의 복리복락으로 이어지고있는 여기에 우리 식 사회주의의 참다운 우월성이 있다.

우리 사회에서 인민들은 정보산업의 발전에 대하여 절실한 리해관계를 가지고있다. 그것은 정보산업 발전이 인민들을 어렵고 로동에서 행방하고 근로자들에게 보다 나은 혜택을 인민대중의 복리복락에 이바지하고있기 때문이다. 우리 당에서는 대중의 창조적힘을 본보리 조직동원할수 있기때문에 정보산업을 빨리 발전시킬수 있는 유리한 조건을 가지고있다.

인민대중이 모든것의 주인으로 되고 모든것이 인민을 위하여 복무하는 우리 식 사회주의사회에서 정보산업은 더욱 발전할것이다.

우리 나라 사회주의 사회는 교양사업을 끊임없이 개선강화하여 정보산업을 비약적으로 발전시켜나갈수 있게 하는 우월한 사회이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로직에서 우리 나라에서는 교육사업도 발전되었기때문에 정보산업을 빨리 발전시킬수 있는 유리한 조건을 가지고있으며 이러한 우월성을 유출해가는 하나의 프로그램발도, 인민경제의 현대화, 정보화도 조국의 번영과 인민의 행복을 위한것으로 되고있다.

정부는 모든 정보기술수단들을 인민들의 건전한 문화정서생활에 적극 리용되고있다. 과학기술, 정보산업의 발전이 곧 인민의 복리복락으로 이어지고있는 여기에 우리 식 사회주의의 참다운 우월성이 있다.

우리 사회에서 인민들은 정보산업의 발전에 대하여 절실한 리해관계를 가지고있다. 그것은 정보산업 발전이 인민들을 어렵고 로동에서 행방하고 근로자들에게 보다 나은 혜택을 인민대중의 복리복락에 이바지하고있기 때문이다. 우리 당에서는 대중의 창조적힘을 본보리 조직동원할수 있기때문에 정보산업을 빨리 발전시킬수 있는 유리한 조건을 가지고있다.

인민대중이 모든것의 주인으로 되고 모든것이 인민을 위하여 복무하는 우리 식 사회주의사회에서 정보산업은 더욱 발전할것이다.



# 북침전쟁을 추구하는자들은 력사와 민족의 준엄한 심판을 면할수 없다

## 반공화국침략정책을 드러낸 불량난공동성명 발표

미국과 남조선호전광들이 조선반도의 평화와 자주통일을 위한 우리 공화국의 노력에 악랄하게 도전해나고있다. 일리전사와 같이 지난 2월 28일부터 남조선에서는 《키 리졸브》, 《독수리》 합동군사연습이 감행되었다. 전쟁연습은 3월 10일까지 일일단위로 했지만 《독수리》 합동군사연습의 일부는 4월말까지 계속되게 된다. 《키 리졸브》, 《독수리》 합동군사연습의 강행으로 북남대화의 분위기는 심히 흐려지고 조선반도에서 핵전쟁발발의 위험은 극도로 증대되었다.

이번 합동군사연습은 동원된 병력과 전쟁장비 그리고 훈련내용으로 볼 때 사상 류례없는 위험천만한 북침전쟁발발을 장난이 아니다.

연습에는 2만명 이상의 미제침략군과 20만명 이상의 남조선피괴군 등 용군 한계의 전쟁을 치르고도 남을 방대한 병력이 참가하였다. 이와 함께 수많은 합선들과 전략폭격기 등 최신 핵타격수단들과 스텔라이커부대 등 첨단 공격무력이 참가하였다. 올해의 《키 리졸브》, 《독수리》 합동군사연습은 그 규모에 있어서 북침전쟁시합경쟁으로 약등놓았던 《림 스피리트》 합동군사연습과 결코 다를바 없는 것이었다.

이번 합동군사연습은 그 내용에서도 극히 도발적인 성격을 드러냈다. 《키 리졸브》, 《독수리》 합동군사연습이 이전에는 그 누구의 《남침》에 대비한

다는 구실밑에 《작전계획 5027》에 따라 진행되었다면 올해에는 그와 완전히 다른 《금번사태》 등에 대비한 《작전계획 5029》에 따라 감행되었다. 《작전계획 5029》에 대하여 말한다면 그 누구의 《금번사태》 류형한 6가지로 분류하고 그 발생시 미국과 남조선호전광들이 《군사적개입에 이행》할것을 예견한 매우 위험한 전쟁감각이다. 이전의 북침합동군사연습들에도 《작전계획 5029》의 내용들이 일부 반영되었지만 이번처럼 전면적으로 적용된적은 없었다. 이것은 이번 합동군사연습이 우리에게 대한 엄청난 정치적도발이며 우리 공화국을 해치기 위한 용납 못할 침략행위라는 것을 보여주고있다.

이번 합동군사연습이 《금번사태》에 따른 《대량살상무기제거》에 중점을 두고 감행된 점도 스쳐지날수 없다. 호전광들은 그 누구의 《대량살상무기위협》을 떠들어대며 미군 제20 지원사령부를 비롯한 특수전병력을 투입하여 우리의 전략적대상들을 타격하기 위한 공격작전연습에 열을 올렸다고 한다. 한편 최신에 장착차를 비롯한 생화학전장비를 갖춘 미육군의 스텔라이커 부대와 피괴군의 《화생방》 부대를 동원하여 우리 공화국에 생화학무기를 공격을 가하는 연습을 실전의 분위기에서 광판적으로 벌려냈다. 이번 불량난공동성의 위협성과 침략적 성격은 여기

서도 명백히 드러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과 남조선호전광들은 《키 리졸브》, 《독수리》 합동군사연습을 《내적인 방어훈련》이라고 광고하며 내외여론을 오도하려 하였다. 하지만 그것은 그들의 범죄적인 북침야망과 호전적정체를 가리우기 위한 파렴치한 꾀에 지나지 않는다.

이번 합동군사연습이야말로 그 무슨 《금번사태》를 가정해놓고 그에 대비한다는 구실밑에 우리 공화국을 핵무기를 비롯한 온갖 수단을 다 동원하여 침략적으로 불의에 공격하기 위한 매우 위험한 불량난공동성이다. 사상 류례없고 심중 공격작전으로 일관된 이번 침략전쟁 연습에 《방안》의 외위를 의의는것이야말로 파렴치한 꾀에 아닐수 없다.

최근 우리는 조선반도에 조성된 긴장상태를 해소하고 어떻게 하나 대화와 협상의 방법으로 북남관계를 개선하기 위해 성의있는 노력을 다하였다. 그러나 미국과 남조선당국은 긴장완화와 북남관계개선의 흐름을 가로막고 대화와 전쟁의 길에 서슴없이 나서고 있다. 북침합동군사연습의 강행은 그에 대한 뚜렷한 실증이다. 이번 합동군사연습을 통하여 미국과 남조선당국자들은 저들이 넘쳐넘는 위대한 《대화》나, 《평화》나 하는것이 반공화국대결정책과 북침야망을 가리우기 위한 헛나발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스스로 드러냈다.

남조선침략세력은 우리의 선의에 등을 돌리고 외세와 아합하여 위험천만한 전쟁연습수단을 벌함으로써 북남사이의 불신과 대결, 군사적 긴장상태를 극도로 격화시켰다. 현 사태는 민족의 안전과 북남관계의 운명은 안중에도 없이 오로지 외세를 등에 업고 동족을 무력으로 해치려고 미쳐달리는 반문일대결집단, 호전광으로서의 남조선당국자들의 범죄적정체를 다시 한번 뚜렷이 보여주고있다.

대화와 평화를 위한 우리 공화국의 적극적인 노력과 온 민족의 지향에도 불구하고 조선반도에는 언제 전쟁이 터질지 모르는 초조진앙상태가 조성되고 있다. 미국과 남조선당국은 이 엄중한 사태에 대한 책임에서 철대로 벗어날수 없다. 미국과 남조선당국이 우리에게 대한 군사적 위협과 압력으로 그 무엇을 얻으려한다면 그보다 어리석은것은 없다. 우리는 선의에 선의로 대답할것이지만 우리를 감히 예로 보려고 불공정을 휘두르는 호전광들을 추호도 용서하지 않을것이다. 조선반도의 평화와 안전을 위협하는 내외호전광들의 악랄한 침략전쟁책동을 우리는 정의의 군사적대응으로 단호히 짓밟아버릴것이다. 미국과 남조선당국을 설을 지고 불속에 뛰어드는 무모한 당동을 당장 걸어치워야 한다.

송영석

## 때 이르렀다, 단체들 공동성명 발표

미국과 남조선호전광들의 합동군사연습을 규탄하여 사회주의인민당, 사회주의노동당, 사회주의노동당, 김일성주의연구위원회, 주체사상연구소, 주체사상연구부, 메히오전조직원위원회, 김일성주의연구회, 메히오전위원회, 메히오전위원회가 5일 공동성명을 발표하였다.

성명은 《키 리졸브》, 《독수리》 합동군사연습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평화발전정책을 각방으로 방해하고 사회주의 제도를 힘으로 압살하려는 미국의 적대시정책이 예나지않이나 달라지지 않는다는 것을 단호히 선언하며 다음과 같이 강조하였다.

이번 《키 리졸브》, 《독수리》 합동군사연습이 조국통일 전쟁을 위한 공격 전선제타격을 위한 공격 전선으로 편성되었다는 것이 매우 사실이다. 연습에는 세계공격의 최후로 공인되고있는 미제침략군의 신식기동 타격무력인 스텔라이커 부대가 처음으로 벌여낸 해외 군사훈련이 바로 남조선에 대한 신식군대훈련이었다.

그때로부터 스텔라이커부대는 합동군사연습을 구실로 남조선에 기여하여 《실제상황과 똑같은 훈련》을 통해 조선반도지형과 상황에 익숙하며 북침전쟁공격준비를 다그쳐왔다. 미국은 2008년의 《키 리졸브》, 《독수리》 합동군사연습이 시작되던 때부터 스텔라이커부대를 선전대로 남조선에 기동시키고 군사분계선 가까이에서 저들의 침략적정체를 견뎌내며 훈련을 강화해왔으며 그것을 인연에 공개하는 등으로 전쟁 열을 고취하였다.

이 위험한 북침전쟁도 또 다시 올해의 《키 리졸브》, 《독수리》 합동군사연습에 참가한 것이다. 이번엔 미국이 스텔라이커부대와 그에 소속된 최신에 장착차를 동원하여 쌍방무력에 첨예하게 대치되어있는 군사분계선 바로 교양에서 《연화화생방훈련》을 감행한것

9일 남조선 《연합뉴스》에 의하면 미제와 피괴호전광들이 군사분계선에서 북침합동군사연습 《쌍매》 훈련을 감행하였다. 미군은 8전투비행단의 《F-16》 전투폭격기와 피괴공군 제20전투비

【조선중앙통신】

조선의 군대와 인민은 대세의 흐름에 완전히 배치되게 또다시 대규모적인 침략전쟁연습을 벌려놓은 미국의 처사에 대한 처응을 분노를 금치 못하고있다. 조선반도를 타고갔든가는 야망으로부터 미국과 남조선피괴호전광들이 벌려놓은 북침전쟁연습을 준엄히 규탄한다.

대화에 도대체도 다 준비되어있으며 자기의 자주권과 존엄을 어찌보려는자들에게 단호하고 무자비한 철수를 내리려는 조선의 립장을 전적으로 지지한다. 불을 즐기는 자는 제가 지른 불에 타죽기 마련이다. 미국은 조선반도의 군사적 긴장을 격화시켜야 하는것보다 잃는

것이 더 많다는것과 초래해 감행하는 사적으로도 피해가 될 모든 후과에 대하여 전적인 책임을 저야 한다는것을 명심하고 분별있게 처신하여야 한다. 미국과 남조선피괴호전광들은 강력한 핵억제력까지 갖춘 불력의 조선인민군과 인민의 열적의 기상을 뚫바로 보고 무모한 불장난을 당장 걸어치워야

조선반도에서 모처럼 마련된 대화의 분위기는 사라지고 핵전쟁의 위험이 날로 증대되고 있는것은 미국과 남조선당국이 말로만 《대화》와 《평화》를 운운하고 실제에서는 스텔라이커부대와 같은 위험한 신계공격무력을 동원하여 북침전쟁공정난공동성을 끊임없이 감행하고 있다.

사실들은 내외호전광들이 이번 북침전쟁연습에 대해 그 무슨 《방언공물》이라고 하겠지만 그것은 저들의 침략적정체를 가리우고 조선반도고강제화의 책임을 모면하기 위한 황당환 꾀비라는것을 보여주고있다.

우리는 미국과 남조선호전광들이 북침전쟁도발책동에 미처 날수없도록 그에 대처하여 선군의 기치를 더욱 높이고 조선반도의 평화와 민족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자위적인 전쟁억제력을 배방으로 다져나갈것이다.

본사기자

**북침을 노린 《쌍매》 훈련 감행**  
행단의 《KF-16》 전투기들이 타격 및 공격훈련에 들어가며 전쟁열을 올렸다. 이와 관련하여 군사지역의 시민단체들은 기지정분야에서

【조선중앙통신】

## 조선학교지원문제 해결을 요구

일본의 도교평화운동원들의 장모모하시 마스오, 사무쿠장조 씨 히사시, 이전의 장조상성씨, 도교-평양우호교류회와 사무쿠 차장 미즈다니 겐지가 4일 도쿄조선학교교과를 찾아 조선학교지원문제 해결을 위한 학생들의 투쟁을 지지하였다.

학생들이 졸업하기 전에 끝내 지원제도지원문제 해결되지 않음에 대해 가슴아프게 생각한다고 하면서 그들은 이러한 불평등을 반드시 시정되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조선중앙통신】

## 북침전쟁공격의 철폐

9일 남조선 《연합뉴스》에 의하면 미제와 피괴호전광들이 군사분계선에서 북침합동군사연습 《쌍매》 훈련을 감행하였다. 미군은 8전투비행단의 《F-16》 전투폭격기와 피괴공군 제20전투비

【조선중앙통신】

## 조선인 희생자 추도회 진행

추도회에서는 도교도의회 의원, 도교도 나카노다의 의원, 일본그리스도교단 목사, 도교대교수조선인희생자를 추도하는 회교도가 발표하였다. 그들은 일본의 식민지통치기 강제연행되었던 수많은 조선사람들이 미군에 의한 무차별적인 도교대공습으로 억울하게 희생되었지만 일본정부는 오늘까지 희생자들과 유가족들에게 아무런 사죄와 배상도 하지 않고 있다고 규탄하였다. 그들은 일본정부가 과거의 죄행을 깨닫고

【조선중앙통신】

## 오만과 독선으로 악명떨친 파쇼독재의 3년

《YTN》 등 대표적인 언론기판들의 요직들에 저들의 입김이 들을 받아들였으며 눈이 거슬리는 진보적언론인들을 강제로 해고시켜버렸다. 미국산 소고기의 위험성을 알리는 텔레비전프로그램을 제작한 《MBC》의 《PD수첩》 제작진들이 대대적인 집요한 수사활동을 벌이고 그들을 박해하였는가 하면 지이 《인터넷정보보호총합책》이라는것을 꾸미고 세상에 내놓은 《씨버모의적》이라는 권명까지 만들어내며 보수당국을 비판하는 글을 인터넷에 올리라는 사람들을 처형하였다. 파쇼광들은 저들의 반인민적 정체를 반대하여 벌어진 대중적인 투쟁들도 《파쇼파괴》의 한 음모, 《불법》은 물론 위협공갈까지 시위현장에 수많은 폭압경찰을 내보내 투쟁을 야수적으로 진압하였다. 그들은 《초법정죄》 100% 불법》이고 집회참가자들을 《체제전복세력》이라고 하면서 도 시중심에서의 집회를 금지시키고 시위자에 대해서는 남나소 할것없이 전한 잡아가두게 하였을뿐아니라 돈과 상품권을 상으로 내걸면서까지 경찰들을 시위참가자들에게로 내몰았다. 이런 파쇼독재의 만무장속에서 민주주의와 인권을 무참히 짓밟았다. 남조선의 한 언론인

본사기자 허영민

## 호전광들의 합동군사연습을 강력히 규탄

### 시민사회단체들 단조

남조선의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을 비롯한 시민사회단체들이 5일 서울에서 집회를 가지고 호전광들의 북침전쟁책동을 단조하였다.

집회에서 발언자들은 당국이 방대한 병력을 동원하여 미국과의 《키 리졸브》, 《독수리》

합동군사연습에 돌아치고있다고 비난하였다. 그들은 호전세력이 이번 합동군사연습을 두고 《방언공물》이라고 주장하였지만 그것은 명백히 북침을 노린 신계공격연습이라고 규탄하였다.

대우기 군사연습개시후 국방

### 수리아신문이 론평

수리아신문 《알 수와라》 4일부가 조선반도에 긴장상태가 조성된것과 관련한 논평을 게재하였다.

론평은 지금 조선반도에서는 방대한 미군무력이 참가한 가운데 미국과 남조선 합동군사연습이 벌어지고있다고 하면서 현실은 미국이 이 지역에서 긴장상태를

### 쌍방사이의 갈등을 더 격화시키고

쌍방사이의 갈등을 더 격화시키고 불신을 조성하려고 책동하였다.

조선이 이에 대해 강한 반격을 가하겠다고 천명했것은 미국의 위협에 맞서 나라의 자주권과 안전을 수호하며 대적이 아니라 민족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였다.

조선반도에 대한 미국의 정책은 예나지않이나 다름이 없다. 미국은 저들의 개입에 필요한 구실을 만들기 위해 조선반도에서 긴장분위기를 계속 유지하는 한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핵을 포기하도록 하려고 여러가지 혐의들을 들이우면서 제재와 압력을 강화하고있다.

총체적으로 볼 때 미국이 조선반도에서 긴장을 격화시키고 대립을 부추기는 속심은 이 지역을 저들의 군사력을 과시하는 장소로 만들어내는데 있다. 그러나 세계인민들은 조선반도정세가 안정되기를 갈망하고 있다. 【조선중앙통신】



호전광들의 북침전쟁책동을 반대하여 투쟁하는 남조선인민들

## 잡지 《백두-한나》 2월호 발행

재중조선인총련합회 잡지 《백두-한나》 2월호를 발행하였다.

잡지는 위대한 평등자 김정일동지의 사진을 모시었다. 위대한 평등자 김정일동지의 명언을 잡지는 게재하였다.

잡지는 민족최대의 경사스러운 2월의 명절에 즈음하여 재중조선인총련합회와 산하조직들에서 다채로운 경축행사를 진행한 소식을 집중편집하였다. 재중중도단체들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 정당,

단체 연합성명을 지지하는 집회와 모임, 성명들을 통해 남조선당국이 북남관계개선과 평화변화의 길에 적극 나설것을 요구한데 대해 잡지는 실었다. 잡지는 이밖에 조국소식 등을 소개하였다.

## 공동선언리행을 위한 실천투쟁을 벌려나갈것을 주장

6, 15 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학술분부가 5일 서울에서 정기총회를 가지고 공동선언리행을 위한 올해투쟁목표를 확정하였다.

총회에서 단체는 지난 기간이룩한 성과와 경험에 토대하여 공동선언의 정당성과 생활

력을 선전하고 리행을 위한 투쟁에 대해 각계 민중을 추동하는 학술활동을 보다 힘있게 벌려나갈것을 강조하였다. 이를 위해 6, 15 학술포럼을 결성하고 정기적인 학술포럼을 진행하며 6, 15 공동선언리행 10, 4번

발표기념 북, 남, 해외공동학술포럼모임을 가질데 대해 단체는 결정하였다. 단체는 조의를 더욱 확대강화하고 6, 15 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의 산하분부와 연대하여 보다 폭넓은 실천투쟁을 벌려나갈것이라고 지적하였다.

## 녀성대행을 위해 투쟁할것을 호소

조국통일범민족연합(범민련) 남측분부가 3, 8 국제부녀절에 즈음하여 8일 녀성대행을 위해 힘있게 투쟁할것을 호소하는 성명을 발표하였다.

성명은 오늘 남조선사회의 처참한 현실은 녀성들의 처지에 집약되었다고 언급하였다. 우리 민족은 미국에 의해 분

렬되어 북남대결을 강요당하고 시대대세력들의 온갖 횡포에 시달려왔다고 하면서 그 고통을 누누보다 나중들이 겪어지고있다고 성명을 밝혔다. 이 땅의 녀성들은 날이 갈수록 사형취급을 받지 못하고있다고 하면서 성명은 녀성들이 자본과 패권의 도구로 삼고 불

행을 강요하는 반역통치를 하루빨리 끝장내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성명은 남조선강점 미군을 철수시키고 시대역역자들을 끌어내버리며 자주, 민주, 통일운동을 적극 전개함으로써 녀성대행의 종소리를 힘있게 울리고야말것이라고 강조하였다.

## 부당한 해고조치철폐와 로조말살책동중지를 요구

남조선의 민주로총과 산하로조단체들이 8일 서울 여의도에 있는 《한나라당》 사당에서 로조말살책동에 대한 부당한 해고와 로조말살책동을 규탄하는 기자회견과 집회를 가지었다.

단체들은 쌍용자동차, 한진중공업, 대우자동차 업자들이 경영파탄의 책임을 로조자들에게 전가하고 구조조정이라는 명분으로 수많은 로조자들을 해고시켰다고 단조하였다.

특히 한진중공업과 대우자동차 업자들은 로조의 단체적 악을 일방적으로 파기하는 등 로조말살을 획책하고있다고 단체들은 규탄하였다.

이에 항의하여 로조자들이 투쟁을 벌리며 로 조목까지 끌고있지만 민중을 포방하던 《한나라당》은 로조계의 투쟁을 외면하고있다고 단체들은 비난하였다.

로조자들에게 대한 해고는 살인행위라고 하면서 단체들은 《우리는 더이상 죽을수 없다》고 주장하였다.

단체들은 25일까지 정례회고집회 및 회생자추모실천기간으로 정하고 로조문제와 관련한 《국회》 청문회실시, 로사학의리형, 해고자복직, 로조자생존보장 등을 요구하여 적극적인 공동투쟁에 나설것이라고

【조선중앙통신】

## 구제역역양 확대

8일 남조선 《KBS》 방송이 《구제역이 발생한지 100일 동안에 입은 상처가 너무 깊다》고 보도하였다.

방송은 경상북도 안동에서 발생한 구제역이 전지역을 휩쓸어 지금까지 347만마리의 짐승들이 매몰처리되었다고 하면서 이로 인해 축산업계가 초상징분위기로 전하였다.

이런 막대한 피해는 당국이 구제역초기발생때 허술하게 대처하였기때문에 초래되었다고 방송은 비난하였다.

방송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국이 매몰처분도 주먹구구식으로 함으로써 환경제약까지 겹쳐져서 되었다고 개탄하였다. 【조선중앙통신】

8일 남조선 《KBS》 방송이 《구제역이 발생한지 100일 동안에 입은 상처가 너무 깊다》고 보도하였다. 방송은 경상북도 안동에서 발생한 구제역이 전지역을 휩쓸어 지금까지 347만마리의 짐승들이 매몰처리되었다고 하면서 이로 인해 축산업계가 초상징분위기로 전하였다. 이런 막대한 피해는 당국이 구제역초기발생때 허술하게 대처하였기때문에 초래되었다고 방송은 비난하였다. 방송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국이 매몰처분도 주먹구구식으로 함으로써 환경제약까지 겹쳐져서 되었다고 개탄하였다. 【조선중앙통신】

8일 남조선 《KBS》 방송이 《구제역이 발생한지 100일 동안에 입은 상처가 너무 깊다》고 보도하였다. 방송은 경상북도 안동에서 발생한 구제역이 전지역을 휩쓸어 지금까지 347만마리의 짐승들이 매몰처리되었다고 하면서 이로 인해 축산업계가 초상징분위기로 전하였다. 이런 막대한 피해는 당국이 구제역초기발생때 허술하게 대처하였기때문에 초래되었다고 방송은 비난하였다. 방송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국이 매몰처분도 주먹구구식으로 함으로써 환경제약까지 겹쳐져서 되었다고 개탄하였다. 【조선중앙통신】

8일 남조선 《KBS》 방송이 《구제역이 발생한지 100일 동안에 입은 상처가 너무 깊다》고 보도하였다. 방송은 경상북도 안동에서 발생한 구제역이 전지역을 휩쓸어 지금까지 347만마리의 짐승들이 매몰처리되었다고 하면서 이로 인해 축산업계가 초상징분위기로 전하였다. 이런 막대한 피해는 당국이 구제역초기발생때 허술하게 대처하였기때문에 초래되었다고 방송은 비난하였다. 방송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국이 매몰처분도 주먹구구식으로 함으로써 환경제약까지 겹쳐져서 되었다고 개탄하였다. 【조선중앙통신】

8일 남조선 《KBS》 방송이 《구제역이 발생한지 100일 동안에 입은 상처가 너무 깊다》고 보도하였다. 방송은 경상북도 안동에서 발생한 구제역이 전지역을 휩쓸어 지금까지 347만마리의 짐승들이 매몰처리되었다고 하면서 이로 인해 축산업계가 초상징분위기로 전하였다. 이런 막대한 피해는 당국이 구제역초기발생때 허술하게 대처하였기때문에 초래되었다고 방송은 비난하였다. 방송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국이 매몰처분도 주먹구구식으로 함으로써 환경제약까지 겹쳐져서 되었다고 개탄하였다. 【조선중앙통신】

